

한국 첫 '페어몬트'... 럭셔리 호텔 경쟁 예고

서울 여의도에 326실 규모 첫 진출
호캉스 영향... 럭셔리 호텔 수요 ↑
비즈니스 호텔보다 선호도 높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에서 럭셔리 호텔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까. 글로벌 호텔체인 아코르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한국에 첫 진출하는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왼쪽)과 토종 호텔그룹인 롯데가 자랑하는 럭셔리 브랜드 시그니엘의 두 번째 호텔인 해운대의 시그니엘 부산. 사진제공 |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롯데호텔

한한령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한껏 위축됐던 국내 호텔시장에 본격적인 럭셔리 호텔 경쟁이 벌어질까. 글로벌 호텔체인 아코르의 럭셔리 브랜드인 페어몬트(Fairmont)가 24일 공식 개장한다.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여는 페어몬트는 326실 규모로 이번이 한국 최초 진출이다. 5000여 개의 호텔, 리조트,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아코르 그룹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국내에서 럭셔리 호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해외 럭셔리 호텔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특급 브랜드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 리츠칼튼(메리어트), 파크하얏트(하얏트), 인터컨티넨탈(IHG) 등 글로벌 체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들어왔지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결국 해외에서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로 불리던 리츠칼튼이 국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2017년 롯데호텔이 토종 럭셔리

리 브랜드 시그니엘 서울을 오픈하고, 이어 대표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 포시즌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차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콘래드(힐튼), JW메리어트(메리어트) 등 각 호텔체인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하나 둘 한국에서 문을 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 떠나면서 대안으로 봄이 분 국내 호캉스 열기는 럭셔리 호텔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실제로 다국적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이 20대에서 50대까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호텔 유형이 럭셔리한 특급호텔(38.8%)로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호텔(30.9%)을 앞섰다. 호텔업계에서는 이런 호캉스 트렌드가 실질적인 럭셔리 호텔 소비로 이어지면서 페어몬트가 선발 업체들을 긴장시키는 '메기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롯데 시그니엘 "한국 맞춤 서비스는 우리가 우위"

그럼 이런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국내 진출은 토종 브랜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럭셔리 호텔은 과거 토종 호텔 브랜드가 엄두를 내지 못하던 장벽 높은 시장이었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2017년 과감하게 6성급 럭셔리 브랜드 시그니엘 서울을 론칭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

다. 롯데에 이어 신세계 그룹도 그랜드조선이던 럭셔리 브랜드를 내놓았다.

민지호 롯데호텔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처음 시그니엘을 론칭할 때 한국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해 미식체험에 특화된 '고메 호텔'을 표방해 성공을 거두었다"며 "글로벌 체인의 브랜드가 아무래도 규모나 이름값이 있겠지만, 한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따른 서비스 개발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하반기까지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그에 대한 대안 소비로 럭셔리 호텔 수요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힐튼→콘래드, 메리어트→리츠칼튼...

럭셔리 브랜드 어떤 것 있나?

럭셔리 호텔은 화려한 건물이나 시설도 따지지만,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서비스나 호텔 콘텐츠를 투숙객 각 개인

에게 얼마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지다. 흔히 럭셔리 호텔을 상징하는 서비스로 객실 담당 버틀러(집사)를 꼽는 것도 그 때문이다.

힐튼, 메리어트, IHG, 아코르 등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갖고 있다. 힐튼은 월드 프 아스토리아, 콘래드가 있고, 메리어트에는 리츠칼튼과 JW메리어트 그리고 스타우드와 합치면서 그룹에 편입된 세인트 레지스가 있다. 하얏트는 파크하얏트와 안다즈가 럭셔리 브랜드이고, IHG는 인터컨티넨탈이다. 아코르는 페어몬

트와 함께 소피텔이 럭셔리 브랜드로 분류된다. 이들과 달리 아예 호텔 체인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포시즌스를 비롯해 만다린 오리엔탈, 페닌슐라다. 엄청난 객실요금과 그에 걸맞은 호화 서비스를 자랑한다. 김재범 기자

“사우나서 이용객 알몸 노출?”...그랜드조선 제주, 사우나 논란

창문 블라인드 처리 안해 내부 노출
“운영상 실수...우려했던 피해는 없어”

공식개장한 지 한 달된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 전용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그랜드 조선 제주의 스위트룸 고객용 여성사우나가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여서 이용자의 알몸이 노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13일 오후 접수됐다. 해당 신고자는 이 호텔의 스위트룸 여성사우나와 화장실을 11일과 12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우나 내

부가 외부에 노출됐는지, 노출 시 이를 목격할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15일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틀간 제주에 새로 생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면서 전용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며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 쪽을 보니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 온도가 끝까지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박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남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랜드 조선 제주 측은 16일 "신관 사우나



알몸 노출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15일 한 포털 커뮤니티에 올린 그랜드조선 사우나. 사진 | 네이트.com 게시글 캡처

에는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를 설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러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으로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현장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날씨와 생활 17일(수)

서울	0/0	인천	10/20	수원	10/20
	-10 -4		-9 -4		-10 -4
춘천	0/20	강릉	0/0	청주	60/30
	-12 -3		-8 -1		-8 -3
대전	30/30	전주	60/60	광주	60/60
	-8 -3		-7 -3		-4 -2
대구	20/20	울산	20/0	부산	20/0
	-7 -1		-5 0		-4 1
창원	10/2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5 1		2 3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7:19 해질 18:13 🌙 달뜨기 10:13 달지기 23:30

산 날씨	내륙	해안
북한산 -11/-3	내장산 -6/-3	대천산 -7/-2
설악산 -9/-3	무등산 -11/-4	지리산 -6/0
오대산 -11/-3	주왕산 -10/-3	한라산 1/5
속리산 -11/-4	계룡산 -10/-3	

바다 날씨	내륙	해안
인천중도 -9/-4	안면도 꽃지 -9/-3	제부도 -9/-4
경포대 -8/-1	거문도 -5/0	속초 -10/-3
대천 -10/-3	해운대 -4/1	제주도 2/3

미세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서울	13	좋은	대전	9	좋은
부산	10	좋은	경기	12	좋은
대구	11	좋은	강원	10	좋은
인천	12	좋은	전북	10	좋은
광주	10	좋은	제주	7	좋은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18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충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사모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17일(수) 음력: 1월 6일 운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노을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맑음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해·번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싸늘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진눈개비
응답센터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은 지살이며 인성일이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인격을 보게 된다. 특히 외국관련 업무 등에서 귀인을 만난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주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망신살이며 식살일이다. 오늘은 말실수를 자주 하는 날이며 희롱적인 언어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할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야 가야 한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원숭이 날이다. 토끼는 원숭이를 만나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 또는 쿠데타의 기질을 갖게 된다.	소가 등을 빌어 언덕을 만나는 대결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용이 원숭이를 만나는 날이다. 화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뱀이 원숭이를 만나는 날이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여우비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먹구름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파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쾌청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비바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신기루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역마일이다. 돈에 역마살이 붙었다. 돈이 굴러가는 것이다. 즉흥적인 행위가 손재수를 유발할 수 있다. 신중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날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검살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속아서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잘못써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감언이설에 조심한 한다면 일을 밟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밟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오늘은 원숭이 날이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만났으니 서로 잘한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남비할 수 있는 날이니 자제하라.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장성이 망신을 만난 날이다. 장성과 망신 관계는 오명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다. 서로 비슷하여 실수한다.	직장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역마다.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칫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남비백이 생김으로 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걱정된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피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만 보이는 날이다. 부동산의 구입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로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